상월결사, 가야산서 걸음마다 불교중흥 발원

해인사 4월 7일 본 · 말사 자비순례

국운융창·불교중흥 초석 발원
흔들림 없는 정진 의지에 경의
봄꽃들 발걸음 장엄 하는 장관
걷기순례 새 문화로 자리 잡아

해인사=하성미 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걸음 걸음마다 보리심과 자비심이 담겨 온 세상에 펼쳐지길 기원합니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발원하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순례단이 합천 가야산 일대에서 힘차게 발걸음을 옮기며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을 발원했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7일 해인사 일대에서 본 · 말사 걷기순례 '2021봄 가야산 해인사 자비순례'를 봉행했다.

먼저 대장경 테마파크 대형주차장에서 집결한 대중들은 입재식을 봉행하고 해인사 자비순례 개최 의의를 전달했다.

입재식은 간략하게 진행됐으며 인사말 및 환영사, 발원문 낭독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순례인사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을 대신해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이 전했으며 이어 죽비 전달식이 진행됐다.

죽비는 상월선원 만행결사의 상징이다. 자승 스님은 죽비를 전달하며 불교중흥에 대한 초석이 다져지길 발원하고 결사 정신이 가야산 해인사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길 기원했다. 자승 스님은 묵언한 채 깨어있음을 상징하듯 죽비를 세 번 친 후 주지 현응 스님에게 전달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자비순례는 정법 포교와 국난 극복을 기원하는 뜨거운 열정이 담겨 있다. 해인사는 법보종찰이다. 희망의 가야산을 걸음걸음 옮길 때 마다 보리심과 자비심이 담겨 온 세상에 펼쳐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원장 진우 스님은 "상월선원 자비순례는 한국불교 중흥과 정법 포교의 불씨를 지피기 위해 진행됐으며 여러 난관을 무릅쓰고 꾸준히 정진해왔다"며 "사부대중이 흔들림 없이 오늘 이 자리까지 정진해 빛을 발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자승 스님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상월선원의 실천과 원력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 모두가 묵묵히 나아가야 할 길이겠지만 선뜻 결심하고 실천하기에 쉬운 일이 아니기에 오늘 동참해 주신 사부대중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순례단은 가야산 소리길을 완주하고 해인사에 도착해 해인도와 장경판전 순례 후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행사를 회향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사부대중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사회의 평온과 화합을 환하게 밝히겠다는 사부대중의 서원이 더없이 선명하기에 불은으로 열어 주신 길을 따라 오늘 가야산 해인사 자비순례의 길을 힘차게 걷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편안하여 화합이 이루어지고,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여 이웃과 함께 화목하며, 한국 불교의 미래가 환하게 밝아지도록 일심으로 정진하겠다"고 발원했다.

순례는 오전 10시에 출발해 오후 2시까지 총 8km를 종주했다. 스님들은 대가사를 수하고 108염주를 들고 코로나 극복을 염원하는 묵언 걷기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걸음 닿는 곳 마다 제비꽃과 민들레 등 봄꽃들이 장엄했고 고요한 발걸음을 대신해 염불하듯 홍류동 계곡의 맑은 물소리가 울려 퍼졌다.

순례단은 가야산 소리길 입구에서 무릉교, 칠성대, 홍류동 등 소리길을 완주했고 해인사에 도착한 사부대중은 해인도와 장경판전 등을 순례하고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행사를 회향했다. 회향식은 부처님께 순례를 고하는 예불에 이어 기념품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간략하게 진행됐다.

고창 선운사에 이은 두 번째 본 · 말사 상월걷기 순례인 해인사 자비순례에는 상월선원 회주 자승 스님,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 대흥사 주지 법상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초심호계원장 호성 스님, 문화부장 오심 스님을 비롯해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 윤성이 동국대 서울캠퍼스 총장, 이영경 경주캠퍼스 총장, 채석래 의료원장, 중앙신도회 주윤식 회장, 거제시의회 최양희 의원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한편, 해인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하고 거리두기, 손소독, 발열 확인 등 예방을 최우선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동참 사부대중은 순례기간 동안 묵언하며 마스크 착용, 손세정 등 방역수칙을 준수했다.

다양한 갈등상황, 화쟁으로 어떻게 풀까?

화쟁위, '화쟁조정 매뉴얼'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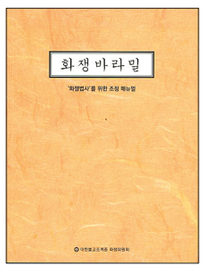
스님들이 직면하는 여러 갈등 상황에서 화쟁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안내서가 나왔다.

조계종 화쟁위원회(위원장 호성)는 최근 화쟁안내서 '화쟁바라밀_화쟁법사를 위한 조정 매뉴얼'(이하 화쟁바라밀)을 발간했다. 화쟁위는 이를 조계종 교육원 승려연수교육의 교재로 활용할 뿐 아니라 다양한 종단 안팎의 갈등에서 화쟁 방안을 제시하는 토대로 삼을 예정이다.

'화쟁바라밀'은 화쟁위가 지난해 발간한 청소년용 화쟁 교재 '하이, 화쟁'에 이어 일반용으로 펴낸 화쟁안내서다. 동시에 지난 2015년 제작한 '화쟁和諍, 인류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몸짓'의 후속판이다.

화쟁위는 "'화쟁和諍, 인류의 미래를 여는 아름다운 몸짓'이 '화쟁사상'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 최초의 실험이었다면 '화쟁바라밀'은 변화된 조건을 반영하고 '화쟁'의 원리와 원칙에 더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화쟁바라밀'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화쟁이란? △화쟁의 눈으로 보는 세상 △화쟁적 갈등해결 5단계 △'화쟁법사'가 조정하는 화쟁 △'화쟁법사' 실습 4제 △화쟁법사의 대화법이다.



'화쟁바라밀'은 화쟁 이론서를 넘어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화쟁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실제 존재하는 다양한 종단 내 갈등에 기반해 화쟁 방안을 제시한 것인만큼, 스님이 현장에서 겪는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승려복지회,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5월 1일~31일 신청자 접수

조계종이 2021년 상반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스님에게 보험료를 지원한다.

승려복지회(회장 금곡)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1인당 매월 3만 6000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지원하며, 기존에 보험료를 지원 받은 스님은 매년 3월 보험료납부확인서를 제출해야 지원이 연장된다.

신청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한 스님 중 국민연금(지역가입)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 중인 스님이다. 신규로 가입한 스님과 기존에 가입한 스님 모두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스님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승려복지 코너 공지사항에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재적교구 본사로 접수하면 된다.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각 교구본사에서 승려복지회로 이관된 신청서류는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승려복지회 관계자는 "국민연금보험료 가입 대상인 만 18~55세의 스님 7000여 명을 보험료 지원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더 많은 스님들이 종단의 보험료 지원 혜택과 사회보험제도를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02)2011-1726~27

송지희 기자

"전통사찰 종부세 부과 철회" 촉구

조계종, 4월 8일 입장문 발표

지난해 정부가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전통사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것과 관련, 조계종이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우리민족 공공의 문화자원이자 유산인 전통사찰의 유지 및 보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계종은 4월 8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가의 조세제도가 마련되기 이전부터 수백 년 간 계승되어온 전통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은 국가 법률에 의하여 지정 및 보존 · 관리되고 있는 전통사찰이 갖는 공공성을 정부당국이 스스로 부인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국가 법률에 의해 지정되어 보존 · 관리되는 전통사찰은 소유 부동산에 대한 처분조차 정부의 승인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통사찰의 공공성을 정부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에,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위는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 내지 편견에서 나오는 반문화적,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라는 주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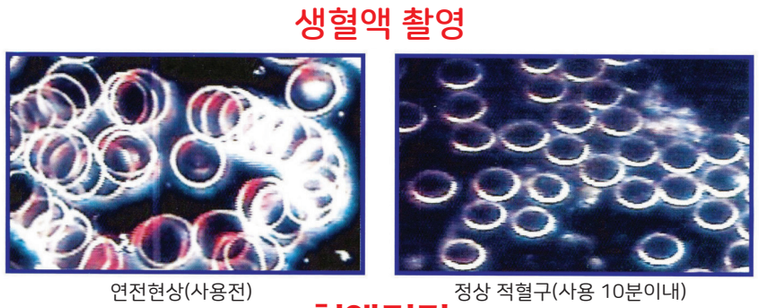
조계종은 특히 "대다수 전통사찰들이 신도들의 시주에 의존하는 사찰의 한정적 재정구조를 고려하면 추가로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전통사찰들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계종은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을 투기의 일부로 간주함으로써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정부당국의 저급한 인식을 통렬히 규탄한다"며 △전통사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정책 즉각 철회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8항 11호의 단서조항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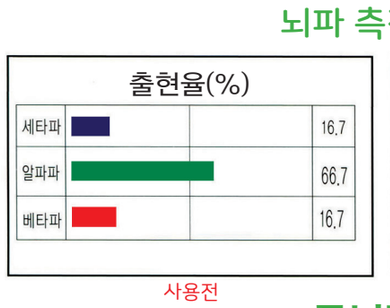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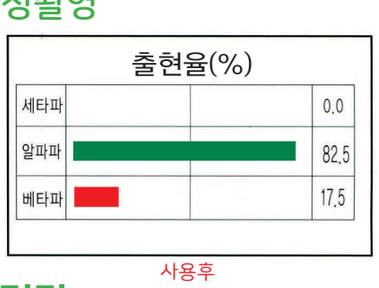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